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본 예레미야 16장 해석*

양인철(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상실한 포로 공동체를 위한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수난과 탄식을 통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예레미야의 회고록이라 일컫는 11-2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남유다 공동체의 고통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고록의 중앙에 위치한 16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결혼 금지와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 않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에게 주어진 결혼 금지 명령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연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호 1:2)과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도 애도하지 말라는 명령(겔 24:16)을 연상케 하는 가혹한 명령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8054983).

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결혼 금지 명령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역사적 예레미야가 아닌 편집자의 문학적 산물임을 주장하는 로버트 캐롤(Robert P. Carroll)은 백성들이 그의 상징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독신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¹ 베네데타 로시(Benedetta Rossi) 또한 16장을 편집비평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예레미야의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에 대한 야훼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후반부에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금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²

그러나 예레미야가 편집층의 흔적이 보인다고 하여, 그에게 주어진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 또한 역사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윌리엄 할러데이(William L. Holladay)는 역사적 예레미야가 공적으로 자신의 금욕을 선포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의 종말을 예고하는 상징이며, 예레미야 16장은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직후인 주전 601년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³ 분명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의 행동에 좌절하였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 출산과 일상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질 것임을 예고하기 위해 스스로 상징적인 행동을 실천했을 것이다. 특히, 예레미야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회고록이 기록된 15장에서 예레미야 본인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15:17-18), 마지막 회

1 Robert P. Carroll, *Jeremi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341.

2 Benedetta Rossi, "Do the Prophets Have a Private Life?" in *Prophecy and Gender in the Hebrew Bible*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21), 306.

3 William L. Holladay,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86), 468.

고록이 기록된 20장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과 슬픔으로 인한 아픔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예레미야 16장은 포로 공동체가 역사적 예레미야가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을 회고하고, 그들이 경험한 재난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예레미야의 금욕적인 삶이 기록된 16장은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후 포로 공동체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재해석하고, 그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처음 제시된 트라우마 연구는 캐시 카루스(Cathy Caruth)에 의해 개인 트라우마가 문학 작품에 끼치는 영향으로 확장되었다.⁴ 그녀의 연구를 기반으로 제프리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는 개인이 경험한 트라우마는 공동체의 트라우마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에 속한 엘리트 그룹(Carrier Group)이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전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⁵ 필자는 최근의 트라우마 연구를 기반으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않는 행동을 알렉산더의 트라우마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바 있다.⁶ 본 논문은 기존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예레미야 16장에서 예레미야가 경험한 공동체의 트라우마는 문화적 기억으로 포로 공동체의 기억 속에 각인된 트라우마이며, 포로 공동체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유대공동체에 주어진 전승을 재해석하고자 노력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역

4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3.

5 Jeffrey C. Alexander, *Trauma: A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2012), 1.

6 양인철, “에스겔서의 아내를 향한 묵언의 애도(겔 24:15-27)”, 『구약논단』 26.2 (2020), 115-148.

사적 예레미야가 금욕적인 삶을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행위는 예레미야 본인이 남유다를 대표해서 경험했던 상징적인 행위이다. 그의 행위는 남유다가 경험했던 트라우마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포로 공동체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문화적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 포로 공동체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전승을 재해석하고 그들의 재난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을 것이다(10-13절). 그들의 노력은 포로 공동체의 귀환(14-15절)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재정립(19-21절)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로 트라우마 이론에 기초로 문학 작품 해석을 하는 학자들(Cathy Caruth, Jeffrey Alexander)의 견해를 소개하고, 얀 아스만(Jan Assmann)의 문화적 기억과 연계해서 연구된 최근의 트라우마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로, 예레미야를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기초로 연구한 최근의 학자들(Kathleen M. O'Connor, Louis Stulman, L. Juliana Claassens)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대한 번역, 구조, 배경을 분석하되, 알렉산더와 아스만의 트라우마 해석이론에 기초하여 예레미야의 트라우마가 포로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트라우마 이론에 근거한 예레미야 해석

1) 문화적 기억으로 각인된 공동체의 트라우마

헬라이어 *τραῦμα*부터 유래한 트라우마는 전쟁 후 외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표현하는 용어이다.⁷ 이 트라우

7 Judith Herman,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역(서울: 사람의집,

마에 대한 용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얀 디트리히(Jan Dietrich)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트라우마를 분석하면서, 아카드어 *miḫṣu*가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으며, 육체의 상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재난 혹은 질병이나 악마에 의한 정신적 상처 또한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⁸ 신약학자 이브 마리 베커(Eve-Marie Becker)는 트라우마는 상처를 의미하는 헬라어 *τραῦμα*와 라틴어 *vulnus*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스 문학 작품에서 신체가 경험한 상처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지만, 사도행전과 초대 기독교 문헌에는 신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상처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⁹

최근에는 트라우마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라우마를 문학 작품 분석으로 도입한 학자는 캐시 카루스(Cathy Caruth)이다. 카루스는 트라우마가 사건을 경험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느 정도 지난 시기에 환상, 꿈, 경직된 행동 등을 통해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 즉 잠복기(latency)를 주목하였다.¹⁰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그의 저서 “모세와 유일신론”(Moses and Monotheism)에서 트라우마를 문학 작품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착안하여 트라우마 이론을 문학 작품

2022), 70.

8 Jan Dietrich, “Cultural Trauma in the Ancient Near East”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Studia Aarhusiana Neotestamentic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146.

9 Eve-Marie Becker, “‘Trauma Studies’ and Exegesis: Challenges, Limits and Prospects”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Studia Aarhusiana Neotestamentic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17.

10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7.

연구에 도입하고자 하였다.¹¹ 프로이트는 태양 중심의 유일신론을 신봉 하였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인 이후, 모세의 신을 자신들이 추종했던 야훼라는 활화산에서 임재하는 신의 이미지와 동화시켰고, 이러한 그들의 트라우마가 새로운 유일신 사상을 만들어내었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 점을 주목한 카루스는 트라우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 이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개인의 문학 작품에서 끊임없이 재등장한다고 주장했다.¹³

사회학자 제프리 알렉산더는 카루스의 의견을 발전시켜, 공동체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 혹은 문화적 트라우마(cultrual Trauma) 이론을 제시하며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 알렉산더는 공동체 트라우마는 개인의 고통이나 실제 사건을 기술하기보다는 그들의 사건을 상징을 통해 재해석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또한 알렉산더는 문화적 트라우마는 공동체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어, 그들의 미래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¹⁵ 그래서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공동체가 재난을 기념하는 의식, 문화적 대표성, 공동체의 담화를 부각하는 정치 행위”의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로 인한 억압의 기재를 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⁶ 알렉산더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소수 엘리트 그룹(Carrier Groups)이 그 과정을 담당한다고 보았다.¹⁷ 즉, 사

11 Cathy Caruth, *윗글*, 7.

12 양인철, *윗글*, 119.

13 Caruth, *윗글*, 72.

14 Alexander, *윗글*, 4.

15 *윗글*, 6.

16 *윗글*, 12.

17 *윗글*, 16.

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소수 엘리트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집단이 옛 관습을 저항하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여,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수 엘리트 그룹은 공동체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¹⁸ 첫째, 고통의 본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발생했고, 특정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둘째, 희생자의 본질이다. 어떠한 집단이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고통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셋째, 트라우마를 경험한 당사자와 듣는 청중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다. 동일한 트라우마를 공유한 청중이어야 트라우마를 경험한 당사자와 동질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이다. 누가 희생자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인가? 어떻게 해서 트라우마가 발생했는지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알렉산더의 공동체 트라우마는 이집트 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의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이 형성되는 과정과 연결된다. 아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개인이 경험한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특히, 국가적 재난을 경험한 한 개인의 트라우마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재해석되는 과정을 주목하였다.

공공의 기억은 공공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유대인 대학살과 과거에 경험한 테러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경험한 기억은 공동체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사건을 읽고 듣는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개인은 희생자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그들의 갈망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기억 속에 활동적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사회화하도록 도와주고, 사회화

18 윗글, 17-19.

과정(Socialization)은 기억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묶는 기능을 하고 있다.¹⁹

즉, 아스만은 인간이 경험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문화적 기억이고, 공동체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기억임을 강조한 것이다. 아스만은 그의 아내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기억이 전승의 형태로 전달되는 과정은 동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²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종교의식은 문화적 의식의 보관 매체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공동체를 지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점을 주목하였다.²¹ 특히, 신명기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총 7가지로 구분하여 아스만은 설명한다.²² 첫째,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해 배우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둘째, 전달하는 교육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기억하는 행위”이다. 셋째, 기억을 지워지지 않게 보이는 장소에 만들어 놓거나 신체에 새긴다. 넷째, 기억을 저장하고 출판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집단의 기억을 축제의 과정을 통해 되살린다. 여섯째, 구전 전승의 형태로 기록된 역사적 기억을 법전으로 성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곱 번째, 모세 오경처럼 정경화 과정(canonization)을 거친다. 위 7가지 과정을 걸쳐 만들어진 문화적 기억은 “우리(we)”라는 결속력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²³

필자는 예레미야 16장에서 역사적 예레미야 사후 소수 엘리트 계

19 Jan Assmann, *Religion and Cultural Mem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4.

20 윗글, 8.

21 윗글, 14.

22 윗글, 18-19.

23 윗글, 24.

층이 그들이 경험한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회복에 이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스만의 주장처럼 16장은 역사적 예레미야의 트라우마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의 산물이며, 공동체가 16장을 낭송함을 통해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예레미야와 트라우마

아나돏 출신 제사장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이 지난 주전 627년부터(1:1-3),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한 이후 주전 582년까지(52:30),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고난과 민족에 임한 재난을 글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사독 계열 대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과 달리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에 정권 싸움에서 실패한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다(왕상 2:26-27).²⁴ 소외된 제사장 그룹에 속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로 부르셨고(1:4-8),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심판을 “북쪽에서 오는 적”으로 표현하며(1:13-16), 그의 예언을 시작하였다. 예레미야는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들의 죄악을 비판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나 그의 선포는 그에게 시련으로 다가왔다. 역사적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예레미야 1-25장에서 예레미야는 고향인 아나돏 사람들에 의해 시련을 겪었으며(11:18-23), 제사장 바스홀에 의해 나무 고랑에 채워 가두는 고난을 겪었다(20:1-6).²⁵ 2

24 윌리엄 홀러데이(William L. Holladay)는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요시야 통치 13년을 의미하는 주전 627년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출생한 시기로 보고 있다. Holladay, *Jeremiah 1*, 1.

25 베른하르트 뉘(Bernhard Duhm)은 예레미야서의 장르를 크게 시문과 산문으로 구분하였고, 시문으로 구성된 1-25장은 역사적 예레미야가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한 자료이며, 26-45장은 산문체로 구성되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던 바룩이 3인칭 시점

부에 해당하는 26-45장은 3인칭 시점으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에 의해 핍박받는 내용을 바룩이 기록하였다. 26-45장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으며(33:1),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련(38:6)을 겪었다. 또한 그의 운명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총독 그다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되자, 요하난과 더불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43:6).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은 남유다 공동체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파괴된 이후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대변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을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예레미야 연구가 베른하르트 뉘(Bernhard Duhm) 이후 예레미야서의 편집 과정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역사적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이 포로 공동체에게 상징했던 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이스 스투만(Louis Stulman)은 예레미야서는 절망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survival manual)”이 기록된 책으로 보았다.²⁶ 스투만은 국가적 재난을 경험한 예레미야 공동체가 세 가지 관점으로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예레미야 공동체는 자신이 경험한 재난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예레미야서는 심연에서 벗어나 포로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즉, 예레미야서는 포로 공동체가 그들에게 임한 고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하며, 하나님만

으로 예레미야의 자서전적인 삶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후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46-51장과 예루살렘 멸망과 여호야긴 사면이 기록된 52장은 후대에 의해 첨부된 것으로 보았다. 예레미야의 편집비평사에 관한 최근 연구는 C. L. Crouc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Jeremiah* (London; New York: Bloomsbury, 2017), 39-40를 참고하라.

26 Louis Stulman, *Jeremiah*,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2005), 1.

이 그들이 겪은 재난을 극복하게 하는 분임을 재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셋째, 예레미야서는 포로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임을 강조하는 책이다.

캐서린 오코너(Kathleen M. O'Connor)는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트라우마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녀는 예레미야서는 포로 공동체가 수동적으로 재난에 임하는 희생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공동체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 주장하였다.²⁷ 그리하여 오코너는 예레미야서 1부에 해당되는 1-25장은 재난을 예측하고 마주치는 내용으로 기록되었고, 2부에 해당되는 26-52장은 재난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오코너는 예레미야서를 분석하면서 세 가지 상징화 과정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독자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았다.²⁸ 첫째,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국가적 재난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1장에서 바벨론을 “북에서부터 온 적”으로 신비로운 존재로 표현하듯 잔인한 역사적 사건을 문자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신화적 장면으로 표현한다.²⁹ 둘째, 재난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여러 다양한 상징 언어를 통해 재난을 설명한다. 재난을 경험한 희생자들은 재난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공동체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며,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에 의해 전쟁에서 패

27 Kathleen M. O'Connor, *Jeremiah: Pain and Promis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31, 84-85.

28 Kathleen M. O'Connor, "How Trauma Studies Can Contribute to Old Testament Studies"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Studia Aarhusiana Neotestamentic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213.

29 윗글, 214.

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명령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⁰ 셋째, 재난을 뛰어넘어 희망이 있는 삶으로 전진하기 위한 상징적인 언어를 창조해낸다. 오코너에 의하면, 재난 이후 새로운 공동체는 과거의 전승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31장 31-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코너는 예레미야서 곳곳에 흩어져 기록된 예레미야가 포획되어 수난당하는 내용은 상징적인 언어를 창조하기 위한 과정 중에 기록된 것이며, 예레미야의 수난은 공동체의 운명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³¹

오코너와 마찬가지로 줄리아나 클라센스(L. Juliana Claassens)는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독자는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³² 클라센스는 문학가 로리 빅크로이(Laurie Vickroy)의 트라우마 이론을 바탕으로 예레미야서를 분석하였다. 빅크로이는 트라우마 이야기가 담긴 소설을 분석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화자의 시점과 단편적인 기억이 담긴 정보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시선 집종의 효과는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독자가 자연스럽게 화자의 이야기를 집중하게 만든다고 보았다.³³ 클라센스는 그녀의 이론을 예레미야서에 적용하면서, 1인칭 서술 시점으로 기록된 예레미야 회고록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독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했다.³⁴

30 윗글, 216.

31 윗글, 218.

32 L. Juliana Claassens, "Jeremiah: The Traumatized Prophet" in *The Oxford Handbook of Jeremia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359.

33 윗글, 359.

34 윗글, 360.

3) 포로 공동체의 트라우마 재해석과 회복

예레미야서의 회고록에 해당하는 11-20장은 예레미야의 탄원과 그의 상징적인 행위가 기록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11-20장은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양처럼 표현된 예레미야의 탄원(11장), 악인의 번영으로 인해 야훼께 질문하는 예레미야(12장), 찢어서 못쓰게 된 허리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는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13장), 가뭄으로 인해 굶주림을 경험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14장), 예루살렘에 대해 그 누구도 붙잡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15장),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16장), 시련 속에서 야훼께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기도(17장),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자 하는 음모에 대항하여 야훼께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기도(18장), 토기장이의 용기를 깨뜨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담긴 내용(19장), 바스홀에 의해 고난을 겪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원하는 내용(20장)으로 전개된다. 특히, 11-20장의 중앙에 기록된 예레미야 16장은 예레미야에게 임할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 이후 공동체가 겪을 심판을 담고 있다. 이 본문에 대한 번역, 구조, 배경 및 해석의 순서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레미야 16장 1-21절 번역³⁵

- 1 그리고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말씀하시기를³⁶
- 2 너는 절대로 너를 위해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³⁷

35 본문에 대한 번역은 최대한 마소라 본문에 근거하여 직역을 하였다. 일부 수정된 문장은 BHS 비평 장치의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

36 70인역은 1절이 생략되어 있다.

37 70인역은 2절 상반절 이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를 추가했다.

그리고 절대로 아들과 딸을 이 곳에서 너는 두지 말 것이니라.

3 분명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 곳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에 대해

이 땅에서 그들을 출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대해

4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들이 죽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묻게 되지 않아 지면 위의 분토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칼에 의해, 기근에 의해 그들은 소진될 것이며 시체가 되어 하늘의 새와 그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5 분명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애곡하기 위해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탄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평화를 이 백성으로부터 거두었기 때문이다 나라.

³⁸나 야훼의 말이니라. 나의 자비와 나의 동정심을

6 그리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묻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사람도 절대로 없을 것이며 몸에 상처를 내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머리를 밀게 되는 자도 없을 것이다.

7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 애도하면서³⁹

그들을⁴⁰ 위해⁴¹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

38 70인역은 5절 하반절의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후부터 6절의 “그들은 절대로 묻게 되지 않을 것이다”까지 생략되어 있다.

39 불가타역은 명사 **לְאֵלֵינוּ**(에벨/애도)이 아니라 형용사 **לְאֵלֵינוּ**(아벨/애도하는)로 읽기를 선호한다.

40 70인역은 복수 접미사 “그들”이 아니라 단수 접미사 “그”로 기록하였다.

41 몇몇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은 **לְרַחֵם**(라헬/그들을 위하여)이 아니라 **לְרַחֵם**(레헬/음식)으로 기록하였다.

- 머니를 위해 위로의 잔으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 8 그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 그들과⁴²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아라.
- 9 **분명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곳으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너희 눈 앞에서 너희 시대에 사라
 지게 할 것이다.
- 10 그리고 네가 이 백성에 이 모든 말을 선포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왜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악행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 범
 죄했던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
- 11 그리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조상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갔으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나를 그들이 버렸고 나의 가르침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 12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갔으며,
 나를 듣지 않았다.
- 13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부터 내쫓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주야로⁴³ 섬길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동정심을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 14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때에는 절대로 다음과 같은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42 몇몇 마소라 사본은 אֱלֹהִים이 아니라 אֱלֹהִים으로 기록하였다.

43 70인역은 “주야로”라는 표현이 생략되었다.

44 70인역과 불가타역은 1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남성 복수로 기록하였다. 즉, 야훼가 아니라 이방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것이다.⁴⁵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15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을⁴⁶ 북쪽 땅으로부터 끌어내신 분이며, 그들을 거기로 내몰았던⁴⁷ 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⁴⁸

16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고기를 낚듯 잡아 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은 사냥꾼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바위 틈에서 사냥할 것이다.

17 나의 눈이 그들의 모든 행실을 보고 있으므로, 그들은 내 앞에서 숨을 수 없다.⁴⁹

그리고 내 눈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18 그리고 내가 우선⁵⁰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던 그들의 악행과 그 죄악을 두 배로 보복할 것이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의 시체로, 그들의 역겨움으로 내 기업을 가득채웠느니라.

19 야훼는 나의 힘, 나의 요새이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에게 민족들이 땅 끝으로부터 이르러 말합니다.

45 23장 7절은 니팔 수동태가 아니라 3인칭 남성 복수, 즉 “그들이 말할 것이다”로 기록되었다. 70인역과 탈굼역 역시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46 70인역과 시리아역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으로 기록하였다. 예레미야 23장 8절은 “이스라엘 집”으로 기록하였다.

47 일부 마소라 본문, 시리아역, 탈굼역, 불가타역은 1인칭 공성 단수인 “나”를 추가하여,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던”으로 기록하였다.

48 예레미야 16장 14-15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23장 7-8절과 유사하다.

49 70인역은 “그들은 내 앞에서 숨을 수 없다”가 생략되었다.

50 70인역은 **רִישׁוֹנָה**(리쇼나/우선)이 생략되었다.

분명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우리 조상이 계승하였으며 거기에는 어떠한 유익도 없느니라.

- 20 사람이 어찌하여 자신을 위해 신들을 만들 수 있는가? 그들은 결코 신들이 아니니라.
- 21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이번에 내가 나의 손과 나의 능력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름이 아훼인 줄 알게 되리라.

(2) 예레미야 16장 1-21절 구조

앞서 기술한 대로 예레미야 16장은 11-20장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심판의 내용을 예레미야 자신의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을 통해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16장은 심판의 내용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중앙에 포로로부터 귀환할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16장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I. 예레미야가 상징으로 보여줄 금지 명령 | 1-9절 |
| A. 예레미야를 향한 결혼 금지 명령과 출산 금지 명령 | 1-2절 |
| 1.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결혼 금지 명령 | 2a |
| 2.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출산 금지 명령 | 2b |
| B.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 | 3-4절 |
| 1.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선포 | 3a |
| 2. 질병, 칼, 기근에 의한 심판 | 3b-4절 |
| C. 예레미야를 향한 공공 장소(초상집, 잔칫집) 방문 금지 명령 | 5-9절 |
| 1. 초상집 방문 금지 명령 | 5-7절 |
| 2. 잔칫집 방문 금지 명령 | 8-9절 |
| II. 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 | 10-13절 |
| A. 유다 백성의 죄의 원인에 대한 질문 | 10절 |

www.kci.go.kr

B. 예레미야의 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	11-13절
1. 첫 번째 죄의 원인: 이방신 숭배와 율법 거부	11절
2. 두 번째 죄의 원인: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함	12절
C. 예레미야의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에 대한 예언	13절
III.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14-15절
A. 과거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하나님	14절
B. 미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하나님	15절
IV. 어부들과 사냥꾼들에 의한 심판	16-18절
A. 어부들과 사냥꾼들을 호출하시는 하나님	16절
B. 야훼의 눈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악	17절
C. 악행과 가증스러운 우상의 시체에 대한 야훼의 보복	18절
V. 야훼 하나님의 신판에 대한 고백	19-21절
A. 시인의 야훼에 대한 고백	19a
B. 민족들의 회개	19b-20절
C. 야훼의 능력과 야훼의 이름을 알게 됨	21절

16장은 예레미야의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이 상징하는 본문(1-2절)로 시작하여, 그의 상징적인 행동이 백성들의 미래에 있을 심판(3-4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후 예레미야는 일상적인 삶의 슬픔과 기쁨이 있는 장소를 참여할 수 없다는 금지 명령(5-9절)을 받게 된다. 이후 전개되는 내용에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과 예레미야의 답변(10-13절)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16장의 중앙에 위치한 14-15절에서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북쪽 땅으로부터 포로 해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회복의 내용 이후 16-18절은

10-13절과 대조를 이루며,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와 사냥꾼들을 호출하는 내용을 전개한다. 14-15절이 심판의 메시지에 갑자기 삽입되었기 때문에, BHS 본문 비평 장치는 이 메시지가 본래 23장 7-8절과 관련된 본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에 첨가된 19-21절은 앞서 기록된 산문체와 달리 시문체로 기록되었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시인과 민족들의 고백과 신관을 재정립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패트릭 밀러(Patrick D. Miller)는 장르가 바뀌고, 시인의 야훼에 대한 고백과 민족의 귀환, 야훼의 이름에 대한 시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편집자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추정한다.⁵¹ 이 구조에서 예레미야는 1-13절에서 “이 땅으로부터”를 5번 반복하면서 이 땅에 임할 야훼의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예레미야 16장 1-21절 배경 및 해석

예레미야 16장은 표제어에 야훼의 말씀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앞서 소개한 대로 할라데이는 예레미야 16장은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기를 불태운 직후인 주전 601년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윌리엄 맥케인(William McKane)은 16장은 15장 17절에 주어진 역사적 예레미야의 고립된 내용에 대한 미드라쉬로써, 확장된 본문으로 보았다. 반면에 밀러는 23장 7-8절의 내용이 16장 14-15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여 16장은 이사야 40-55장이 기록된 시기와 유사한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시기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⁵³ 밀러는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북방, 즉 바벨

51 Patrick D. Miller, “The Book of Jeremiah,”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 Leander E. Keck, 12 vols. (Nashville: Abingdon, 2001), 672.

52 Holladay, *Jeremiah 1*, 468.

53 Miller, *윗글*, 672.

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의 회복이 그 근거라 본 것이다.

위 학자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회고록(11-20 장)은 주전 601년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이후, 야훼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16장의 처음 기록은 15장에 주어진 역사적 예레미야의 고통을 바탕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예레미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이 다시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음을 강조했다. 심리학자 바미크 볼칸(Vamik Volkan)은 세대 간 트라우마가 무의식적으로 전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후대에게 전수된 트라우마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⁴ 어쩌면 포로기 이후 공동체는 예레미야 16장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재난 이후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가 영구한 것이 아니기에 14-15절을 첨가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예고했을 것이다. 역사적 예레미야의 삶을 회고한 후대의 소수 엘리트 계층은 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승을 재해석했을 것이다. 그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은 16장에서 4단계에 걸쳐 전개된다: (1) 상징을 통한 의미부여, (2) 트라우마의 책임에 대한 설명, (3) 전승에 대한 재해석, (4) 예전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위 4단계에 따라 16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징을 통한 의미부여

예레미야는 상징을 통해 공동체에게 임할 재난의 의미를 설명한다. 예레미야의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은 남유다에게 회

54 Vamik Volkan, *Blood Lines: From Ethnic Pride to Ethnic Terrorism* (Boulder: Westview Press, 1998), 43-45.

망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금지 명령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지시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창 1:26-27)과 대치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남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장소로 변질되었고,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הָיָה מִיָּמֶיךָ**(바마콧 하째/이 곳에서)(2절, 3절 상반절), **הָיָה בְּאַרְצְךָ**(바아레쯔 하쯔트/이 땅에서)(3절 하반절, 5절, 6절, 13절)를 반복하면서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코리네 카발로(Corrine L. Carvalho)는 예레미야의 결혼 금지 명령에 대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유대 엘리트 계층의 여성화를 상징한다고 보았다.⁵⁵ 카발로에 따르면, 명예로운 유대인은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의 장소인 장례식이나 잔칫집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통상적인 여인의 모습처럼 우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남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남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몰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⁵⁶

다음으로 포로 공동체의 고립된 모습을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는 고립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외상 사건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우정, 사랑,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깨진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자기 구성이 산산이 부서진다... 외상은 가까

55 Corinne L. Carvalho, “Sex and the Single Prophet: Marital Status and Gender in Jeremiah and Ezekiel,” in *Prophets Male and Female: Gender and Prophecy in the Hebrew Bible,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the Ancient Near East*, ed. Jonathan Stökl and Corrine L. Carvalho (Atlanta: SBL Press, 2013), 260.

56 윗글, 240.

운 관계를 회피하게 만드는 동시에, 절박하게 관계를 추구하게도 만든다. 기본 신뢰의 깊은 혼란, 수치심, 죄책감, 잦은 열등감, 사회적 생활 속에서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외상 단서를 회피하려는 욕구, 이 모든 것은 사람을 가까운 관계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⁵⁷

전쟁 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사회로부터 고립감이라 할 수 있다. 15장 17절에서 예레미야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고통이 슬픔과 기쁨의 공공의 장소인 초상집과 혼인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5-9절). 초상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חַדְוָה**(마르제아흐/초상집)는 구약성서에서 예레미야 16장 5절과 아모스 6장 7절에서만 등장한다. 할러데이에 따르면, 마르제아흐는 우가릿 문서에서도 발견되는 연회장소를 의미하며, 아모스 6장 7절의 맥락에서 볼 때, 초상집 안에서 시끄럽게 펼쳐지는 연회장소를 연상한다고 주장했다.⁵⁸ 이러한 공공의 장소를 참여하지 못한 예레미야의 고립된 모습을 두고, 클라센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Post-trauma stress disorder)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⁵⁹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묘사를 상징을 통해 기록한다.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46-51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바벨론을 “북쪽에서 오는 적”으로 묘사한다(1:13-16). 15절의 “북쪽 땅”은 바벨론을 상징하며, 바벨론 포로로부터 공동체를 구원할 것을 예고한다. 또한 16절에서 바벨론 제국을 “어부”와 “사냥꾼”으로 묘사하

57 허먼, 윗글, 106, 116.

58 Holladay, *Jeremiah 1*, 470-471.

59 Claassens, *Jeremiah: The Traumatized Prophet*, 363-364.

며, 남유다 공동체를 살살이 찾아 살해하고 포획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오코너는 바벨론 제국의 폭력을 경험한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을 의도적으로 “북쪽으로부터 온 신비스러운 존재”, “초월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표시했다고 주장한다.⁶⁰

예레미야는 결혼 금지 명령과 자녀 출산 금지 명령을 수행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묘사했고, 그 멸망이 가져올 사회적 고립과 수취심을 16장에서 상징을 통해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재난의 당사자인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한 아픔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함을 알 수 있다.

② 트라우마의 책임에 대한 설명

알렉산더는 공동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 엘리트 계층(carrier group)은 그들의 트라우마를 설명하기 위한 거대 서사(master narrative)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¹ 이 거대 서사에서 소수 엘리트 계층이 설명해야 할 네 번째 질문은 “트라우마의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즉, 누가 가해자에게 실제로 상처를 입혔고, 누가 트라우마를 만드는 원인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² 에스겔은 트라우마의 책임 소재를 밝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떠나 우상숭배를 범하는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이야기했다.⁶³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16장에서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10-13절, 17-18절에서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이 행한 악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고대 근동 문학 작품에서 한 도시 국가가 멸망하면 그 도시 국가를 상징하는

60 O'Connor, 윗글, 214.

61 Alexander, 윗글, 16-17.

62 윗글, 18.

63 양인철, 윗글, 139-140.

신이 강대국의 신보다 열악하므로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⁶⁴ 고대 근동 문학의 신관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의 마르둑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대표하는 야훼는 열악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의 신정론은 예루살렘 멸망은 야훼의 약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의 우상숭배와 율법 조항에 대한 거부와 악한 행위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설명한다(10-13절).

③ 전승에 대한 재해석

포로 공동체는 전승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승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세대는 직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였지만, 이후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포로 공동체는 전 세대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데이비드 얀센(David Janzen)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포로 공동체는 기존에 있던 전승에 대해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주

64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수메르 예가의 시에서 시인은 도시의 파괴와 함께 도시를 대표하는 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수메르 예가의 신학적 관점과 관련하여 다음 책을 참조하라. Samuel N. Kramer, "Lamentation over the Destruction of Ur," *Assyriological Studies* 12 (1940); Margaret W. Green, "The Eridu Lament,"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30 (1978): 127-167; Margaret W. Green, "The Uruk Lament," *JAOS* 104 (1984): 253-79; Piotr Michalowski, *The Lamentation over the Destruction of Sumer and Ur*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89); Paul W. Ferris, *The Genre of Communal Lament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Scholars Press, 1992); F. W. Dobbs-Allsopp, *Weep, 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City-Lament Genre in the Hebrew Bible*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Steve Tinney, *The Nippur Lament: Royal Rhetoric and Divine Legitimation in the Reign of Išme-Dagan of Isin (1953-1935 B.C.)*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1996).

장한다.⁶⁵ 그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공동체는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승으로 재해석하고, 그들의 해석방법이 트라우마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⁶⁶ 예레미야서는 31장 31절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향해 새 언약을 선포했던 것처럼, 16장에서 기존 전승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전승을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4-15절이다. 14-15절은 포로 공동체에게 기억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원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북쪽 땅”과 “내몰았던 땅”으로부터 구원 해주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전승에 대한 재해석은 안 아스만이 주장하는 문화적 기억의 변형(transformations of cultural memory)이다.⁶⁷ 기존 전승으로 포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포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전승을 형성하는 것이다.

④ 예전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마지막으로 남유다 멸망 이후 새롭게 결성된 공동체를 위해 전승은 예전(liturgy)의 형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전의 형식으로 완결함으로써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21절의 장르는 시문체이며, 야훼에 대한 신관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이 전승으로 기록되면서, 최종 단계에 정경화 과정과 더불어 예전(liturgy)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⁶⁸ 아스만은 인간의 문화적 기억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65 David Janzen, *The Violent Gift: Trauma's Subvers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Narrative* (London: T&T Clark, 2012), 5.

66 Janzen, *윗글*, 33.

67 Assmann, *윗글*, 37-39.

68 Assmann, *윗글*, 39.

기억을 후대에까지 보존하기 위해 시적인 형태, 종교 의식,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⁶⁹ 엘스 홀트(Else K. Holt)는 아스만의 의견에 동의하며 예레미야서가 후대에 예전(liturgy)의 형식으로 문서화 되었으며, 공동체의 트라우마가 기록된 전승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⁷⁰ 19절에서 시인은 야훼 하나님은 “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다. 그러나 19-21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으로 묘사되며, 야훼의 능력과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질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국지적인 신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포로기 이후 공동체는 역사적 예레미야의 심판을 회고하며, 그들의 선조가 경험한 재난에 대해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재정립했을 것이다. 19-21절은 그들의 신관을 예전의 형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후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캐시 카루스와 알렉산더의 트라우마 이론을 기반으로 예레미야 16장을 분석하였다. 예레미야가 속한 공동체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에 대

69 Assmann, 윗글, 39.

70 Else K. Holt, “Daughter Zion: Trauma, Cultural Memory and Gender in OT Poetics”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Studia Aarhusiana Neotestamentic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174.

한 재정립이 필요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공동체가 그들의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로 예레미야 16장을 4가지 단계, 즉 (1) 상징을 통한 의미부여, (2) 트라우마의 책임에 대한 설명, (3) 전승에 대한 재해석, (4) 예전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의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체험할 세대가 경험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결혼 금지 조항과 자녀 출산 금지 조항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레미야는 초상 집과 잔칫집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남유다 멸망 이후 남게 될 공동체에 슬픔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부재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역사적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상징 행위는 국가적 재난을 경험한 자들이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남유다 멸망 이후 남겨진 공동체를 위해 소위 엘리트 계층(carrier groups)에 속한 예레미야의 정신을 계승한 자들은 그들 세대의 문화적 기억 속에 각인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재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공동체가 야훼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야훼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의 귀환을 약속하고 있다(14-15절). 새로운 세대에 속한 공동체를 위해, 포로기 이후 공동체는 예전(19-21절)을 만들었으며, 그 예전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는 여러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에 299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눈앞에서 침몰 사고로 죽어가는 학생들을 구할 수 없었던 상처를 남긴 사고

이다.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압사로 인해 159명의 청년이 사망한 재난이다. 이 두 번의 재난을 연속해서 경험한 20대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예레미야서 16장에서 새롭게 결성된 포로 공동체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정립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세대의 아픔을 감싸 주고 회복을 주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19-21절이 하나님을 향한 신관을 재정립하고, 온 민족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한 것처럼,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공동체에게 온 우주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예배를 통해 깨닫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lexander, Jeffrey C. *Trauma: A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2012.
- Assmann, Jan. *Religion and Cultural Mem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Becker, Eve-Marie. "Trauma Studies' and Exegesis: Challenges, Limits and Prospects."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edited by Eve-Marie Becker, Jan Doehorn, and Else K. Holt, 15-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Boase, Elizabeth and Christopher G. Frechette (eds.), *Bible through the Lens of Trauma*. Atlanta: SBL Press, 2015.
- Carroll, Robert P. *Jeremiah: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www.kci.go.kr

-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Carvalho, Corrine L. "Sex and the Single Prophet: Marital Status and Gender in Jeremiah and Ezekiel." In *Prophets Male and Female: Gender and Prophecy in the Hebrew Bible,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the Ancient Near East*, edited by Jonathan Stökl, 237-67. Atlanta: SBL Press, 2013.
- Claassens, L. Juliana, "Jeremiah: The Traumatized Prophet." In *The Oxford Handbook of Jeremiah*, edited by Louis Stulman, 358-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Crouch, Carly L.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Jeremiah*. London: Bloomsbury, 2017.
- Dietrich, Jan. "Cultural Trauma in the Ancient Near East."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edited by Eve-Marie Becker, Jan Dochhorn, and Else K. Holt, 145-6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Herman Judith/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열린책들, 2012.
- Holladay, William L.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Holt, Else K. "Daughter Zion: Trauma, Cultural Memory and Gender in OT Poetics."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edited by Eve-Marie Becker, Jan Dochhorn, and Else K. Holt, 162-7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Holt, Else K. and Carolyn J. Sharp (eds.), *Jeremiah Invented: Constructions and Deconstructions of Jeremiah*. London: T&T Clark, 2015.
- Janzen, David. *The Violent Gift: Trauma's Subvers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Narrative*.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12.
- Kolk, Bessel van der.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New York: Penguin Books, 2014.
- LaCapra, Dominick.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 Miller, Patrick D. "The Book of Jeremiah."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ited by Leander E. Keck, 565-811. Nashville: Abingdon, 2000.
- O'Connor, Kathleen M. "How Trauma Studies Can Contribute to Old Testament Studies." In *Trauma and Traumatization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Dimensions: Insights from Biblical Studies and Beyond*, edited by Eve-Marie

Becker, Jan Dochhorn, and Else K. Holt, 210-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_____. *Jeremiah: Pain and Promis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Rossi, Benedetta. "Do the Prophets Have a Private Life?" In *Prophecy and Gender in the Hebrew Bible*, edited by L. Juliana M. Claassens, Irmtraud Fischer, and

Funlola O. Olojede, 293-314. Atlanta: SBL Press, 2021.

Volkan, Vamik D. *Blood Lines: From Ethnic Pride to Ethnic Terrorism*. Boulder: Westview Press, 1999.

양인철, "에스겔의 아내를 향한 묵언의 애도(겔 24:15-27): 에스겔의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본 해석," 『구약논단』 76(2020. 03), 115-148.

검색어

트라우마, 예레미야, 캐시 카루스, 제프리 알렉산더, 얀 아스만, 성서해석학

[ABSTRACT]

Understanding Jeremiah's Prophecy in Jer 16 through the Lens of Trauma

Inchol Yang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analyzes Jeremiah 16 based on Cathy Carus and Alexander's trauma theory. The community to which Jeremiah belonged experienced mass destruction by the Neo-Babylonian Empire in 587 BCE. The exiles wer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worldview of God. In this paper, I investigate Jeremiah 16 as an example of the process by which a traumatized community redefines their worldview in the following four stages: (1) giving meaning through symbols, (2) explaining the features of trauma, and (3)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 and (4)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through liturgy. Jeremiah obeyed the prohibition of marriage and the prohibition of having children in order to show the future that the devastation surrounding Jerusalem will happen. In addition, Jeremiah foretold the absence of a public place where he could fully display sorrow and joy in the community that would remain after the destruction of Judah by showing his refusal to participate in the house of mourning and the house of feasting. The symbolic act expressed by such an historical Jeremiah is a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national disasters.

www.kci.go.kr

key words

Keywords, Trauma, Jeremiah, Cathy Caruth, Jeffrey Alexander, Jan Assmann,
Biblical Hermeneutics

투고일 : 2023년 04월 05일

심사일 : 2023년 04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5월 17일

www.kci.go.kr